
폴 벤스를 어떻게 읽는가

고 원 | 경희대학교 사학과

vertbois@freechal.com

I. 머리말

폴 벤스(Paul Veyne)는 1971년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Comment on écrit l'histoire*)를 출간하면서 미셸 드 세르토(Michel de Certeau), 장 세노(Jean Chesneaux) 등으로 이어지는 1970년대 프랑스 역사학계의 인식론 논쟁을 촉발시킨 인물이다. 프랑스 내에서 시작된 이 논쟁은 1979년 잇따라 발표된 영국 역사가 로렌스 스톤(Lawrence Stone)의 「서사의 부활: 새로운 옛 역사에 대한 고찰」¹⁾, 미국 역사가 헤이든 화이트(Hayden White)의 『메타역사』²⁾와 맞물리면서 국제적으로 확장된다. 우리는 이러한

1) Lawrence Stone, "The Revival of Narrative: Reflections on a New Old History", *Past and Present* 85, Nov (1979), pp. 3~24.

2) Hayden White, *Metahistory: The Historical Imagination in 19th Century Europe* (Baltimore: The Johns Hopkins University Press, 1979), 우리나라에서는 『19세기 유럽의 역사적 상상력』(천형균 옮김, 문학과 지성사, 1991)이라는 제목으로 번역됐다.

논쟁의 물꼬를 터 주었던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에서 표명되고 있는 벤즈의 역사사상을 살펴보고자 한다.

벤즈의 저서는 당시 프랑스 역사학계의 전반적인 분위기를 고려할 때 상당히 독특한 시도였다. 그는 이 저서를 통해 역사의 일반이론을 정립하려 했다. 벤즈 이전 프랑스 학계에서 역사에 대한 이론적 고찰은 철학의 영역에 속하는 작업으로 인식되어 있었고, 따라서 대부분의 역사학자들은 역사학을 둘러싼 이론적, 철학적 논의에는 별다른 관심을 두지 않았다. 물론 마르크 블로크(Marc Bloch)나 루시앙 페브르(Lucien Febvre),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과 같은 저명한 역사가들이 ‘역사연구에 관한 글들’을 남기기는 했지만, 그 내용은 주로 역사가들의 저서나 논문에 대한 논평이 대부분이며 본격적으로 역사이론을 다룬 글은 찾아보기 힘들었다.³⁾ 이러한 상황에서 벤즈는 체계적인 역사이론을 구성하려 시도한 것이다.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는 출간된 이후 역사학계에 많은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그때까지 역사연구의 이론적 논의에 무관심하던 역사학자들 사이에서 벤즈의 저서가 관심의 대상이 될 수 있었던 이유는 미셸 푸코의 영향 때문이었다. 푸코는 철학자였지만 역사에 많은 호감을 가지고 있었다. 기존의 철학자들과는 달리 푸코는 철학적인 방식이 아니라 ‘역사학적인 방식’으로 역사에 접근했고, 그의 작업은 역사학자들에게 많은 영향을 주었다.⁴⁾ 벤즈는 푸코와 절친한 사이였다. 그렇지만 벤즈가 푸코와 이론적으로 직접적인 연관을 가지고 있었던 것은 아니다.⁵⁾ 푸코는 단지 역사

3) 유일한 예외는 *De la connaissance historique*를 저술한 앙리 마루(Henri Marrou) 정도일 것이다.

4) 푸코는 이론적 분석과 논증보다는 실증적인 역사서술을 통해 자신의 철학을 이야기하는 방식을 선호했다. 따라서 그의 저술들은 역사학 저서이면서 동시에 철학 저서이기도 하다. 푸코와 역사학자들 간의 비판적 관계에 대해서는 고원, 「푸코와 브로델: 교차점과 쟁점」, 『역사와 문화』 9호 (2004)를 참조.

5) 푸코와 벤즈의 결정적인 차이는 역사의 해석을 둘러싼 “이해”(compréhension)의 역할에 있다. 푸코는 역사의 이해, 즉 역사는 설명될 수 없으며 다만 동일화의 과정을 통해 내부로부터 이해될 수 있을 뿐이라는 견해를 거부한다. Michel Foucault, “Réponse à une Question” *Esprit* 371 (1968), pp. 850~874; “Interview par J. J. Brochier” *Magazine littéraire* No.29 (1969), p. 23 참조. 반면, 벤즈에게 이해는 역사를 해석하는데 핵심적인 개념이다. 이해에 대해서는 이 논문의 III장에서 상세하게

학계 내부에서도 역사를 이론적으로 고찰하고 논의할 수 있는 공간을 만들어 주었을 뿐이었다.

벤느의 이론적 작업에 대해서는 다양한 해석들이 존재한다. 프랑소아 도스(François Dosse)는 벤느를 아날 제3세대 역사가들과 연관지어 설명한다.⁶⁾ 도스에 따르면, 제3세대 아날 역사가들의 계열사는 경험주의로의 후퇴를 의미하는데 이러한 경험주의는 벤느의 『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에서 절정에 이른다. 반면, 에르베 마르탱(Hervé Martin)은 벤느의 사상을 제3세대 아날이 아닌 아날의 창시자와 연결짓는다.⁷⁾ 마르탱은 루시앙 페브르와 레이몽 아롱(Raymond Aron)에서 출발해 1950년대 앙리 마루(Henri Marrou)를 거쳐 1970년대 벤느와 아담 샤프(Adam Schaff)로 이어지는 프랑스 “상대주의” 역사사상의 지적 계보를 그리고 있다. 심지어 우리나라에 벤느의 책이 번역되면서 함께 나온 해설들은 전혀 다른 맥락에서 그를 아날의 역사가들과 적대적 관계로 설정하면서 포스트모더니즘의 선구자로 간주하고 있다.⁸⁾ 다분히 출판사 측의 상업적인 의도가 배어 있는 이 해설은 다소 지나친 감이 있지만, 그만큼 벤느의 작업이 다양한 관점에서 해석될 수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왜 이처럼 다양한 해석들이 나오는가? 그리고 이 다양한 시각들 속에서 벤느를 어떻게 읽을 것인가? 이 논문은 벤느가 『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에서 제시하고 있는 역사이론을 역사사상의 역사 속에서 살펴보려 한다. 우리는 먼저 벤느의 『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가 출간되었던 1970년대 초 프랑스 역사학계의 흐름과 그의 저서가 맺고 있는 관계를 고찰해볼 것이다. 그리고 난 후, 벤느의 사상적 기원을 찾아 근대 역사사상들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갈 것이다. 마지막으로, 벤느 이후 근대에 이르기까지의 역사 인식론 논쟁 속에서 그의 저서가 어떤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지에 대해 알아보도록 하겠다.

다를 것이다.

6) 프랑소아 도스, 『조각난 역사』 김복래 옮김 (서울: 푸른역사, 1998), 260~265쪽.

7) Guy Boudé et Hervé Martin, *Les écoles historiques* (Paris: Seuil, nouvelle édition 1983), pp. 339~351.

8) 우리나라에 번역된 폴 벤느의 책은 『그리스인들은 신화를 믿었는가』(김운비 옮김, 이학사, 2002)와 『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이상길, 김현경 옮김, 새물결, 2004)가 있다. 이들 책에 수록된 옮긴이의 글과 출판사 측의 홍보글들을 보라.

II. 역사란 무엇인가

1. 역사와 과학

『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첫 문장에서 시작된다. 벤느에게 역사란 무엇인가?

역사학은 과학이 아니며 과학으로부터 대단하게 기대할 것이 없다; 역사학은 설명하지 않으며, 방법을 가지고 있지도 않다; 게다가 우리가 지난 2세기 이래 많이 이야기해온 대문자 역사(L'Histoire)는 존재하지 않는다.⁹⁾

벤느의 이 주장 자체는 20세기 프랑스 역사학의 흐름에서 크게 새로울 것이 없다. 역사를 하나의 과학으로 생각했던 건 19세기 후반의 역사가들이었다. 1888년 푸스텔 드 쿨랑주(Fustel de Coulanges)는 역사란 “예술이 아니라 바로 순수과학”이라고 주장했었다.¹⁰⁾ 여기서 순수과학이란 1876년 가브리엘 모노(Gabriel Monod)가 『역사학 잡지』(*La Revue historique*)를 창간하며 선언했던 “실증과학”¹¹⁾을 의미한다. 이들이 생각했던 과학적 역사란 역사가의 모든 주관성을 제거하고 오로지 사료비판에만 전념하는 학문이었다. 그렇지만, 20세기에 접어들면 역사학계의 주류로 부상한 방법론 학파에서도 역사학은 더 이상 과학으로 취급되지 않는다.¹²⁾ 방법론 학파를 비판하며 등장한 아날의 역사가들에게도 ‘역사과학’(une histoire-science)이란 이미 실패한 프로젝트였다.¹³⁾ 벤느가 말하

9) 폴 벤느, 『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 이상길, 김현경 옮김 (서울: 새물결, 2004), 14쪽. 이하 번역서의 몇몇 부정확한 구절은 붙여 원문(Paul Veyne, *Comment on écrit l'histoire*, Seuil, 1971)을 근거로 수정해서 인용했다.

10) Fustel de Coulanges, *La Monarchie française* (Paris: 1888), pp. 32~33.

11) Gabriel Monod, “Le Manifeste”, *La Revue historique* 1 (1876). 창간사에서 가브리엘 모노는 다음과 같이 선언한다. “이 잡지는 실증과학과 자유로운 토론의 집합소가 될 것이다. 그렇지만 이 잡지는 사실의 탐구에 전념할 것이며, 정치적, 철학적 이론들은 수용하지 않을 것이다”.

12) Charles Seignobos et Victor Langlois, *Introduction aux études historiques* (Paris: 1898), p. 206.

13) Fernand Braudel, “Les Responsabilités de l'histoire”, *Les Ambitions de l'Histoire* (Paris: Editions de Fallois, 1997), p. 101.

는 대문자 역사, 즉 종말목적론적 역사철학 역시 마찬가지이다. 중세 아우구스티누스의 신학에서 탄생하여 독일 관념철학을 통해 하나의 체계적인 사상으로 구성되고 스탈린에 의해 <역사유물론>이라는 역사의 과학적 법칙으로 설명되는 이 대문자 역사도 프랑스에서는 한번도 역사연구의 주류가 되어 본 적이 없었다. 기껏해야 스탈린주의 노선을 신봉하는 공산당 계열의 학자들만이 대문자 역사에 기초하는 역사과학을 주장했고, 이들 역시 '68년 5월' 이후가 되면 대부분 전향하고 만다.¹⁴⁾

그렇다면 벤느의 주장은 이전의 모두가 생각해오던 내용을 그대로 되풀이하는 것에 불과한 걸까? 그렇지 않다. 기존의 역사가들, 특히 루시앙 페브르와 마르크 블로크(Marc Bloch)를 거쳐 페르낭 브로델(Fernand Braudel)에 이르는 아날의 역사가들과는 달리 벤느는 역사가 과학이 아니라는 점을 '극단적으로' 주장하고 있다. 이 것은 작지만 결정적인 차이이다. 페브르나 블로크, 브로델에게 역사란 순수한 과학도 아니지만, 그렇다고 전적으로 과학과 대치되는 학문도 아니었다. 역사란 과학인가라는 질문의 배후에 숨어있는 객관성과 주관성의 문제 역시 마찬가지였다. 객관성과 주관성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겹쳐진다고 생각했다.¹⁵⁾ 이들에게 중요했던 작업은 역사에 경직된 정의를 부여하고 한계를 구분 짓는 것이 아니라 역사의 모든 가능성을 포괄하면서 그 경계를 무한히 확장하는 것이었다.¹⁶⁾ 그렇지만 벤느는 자신의 선배들과는 달리 역사를 구분 짓고, 한계를 설정하는 작업을 시도한다. 다시 말해, 벤느의 저서는 1969년 아날의 세대교체 이후 전개되는 '조각난 역사'의 상황을 단적으로 보여주고 있는 것이다.

14) 아날 제3세대를 대표하는 엠마뉴엘 르 르아 라뒤리(Emmanuel Le Roy Ladurie), 프랑소아 푸레(François Furet) 등이 스탈린주의에서 출발한 역사가이다. 그렇지만, 이들은 1956년 소련의 헝가리 침공 이후 자유주의로 정치노선을 변경한다. 자크 르 고프(Jacques Le Goff)나 조르주 뒤비(Georges Duby) 등은 끝까지 맑스주의를 고수했지만 '역사의 과학적 법칙'을 추구하는 스탈린주의적 역사학과는 거리를 두고 있었다.

15) Fernand Braudel, *Ibid.*

16) Fernand Braudel, "Histoire et sociologie", *Les Ambitions de l'Histoire*, pp. 18 0~182를 보라.

2. 사건들의 역사

역사는 과학이 아니며 대문자 역사 또한 존재하지 않는다면, 역사란 과연 무엇인가? 벤드는 이렇게 대답한다. “역사가들은 인간이 그 주역을 맡고 있는 실제 사건들에 관해 이야기한다. 역사란 사실로 구성되는 소설”(l'histoire est un roman vrai)¹⁷⁾이며,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¹⁸⁾라고 대답한다.

아날의 세대교체 이후 새로이 나타난 변화는 이른바 ‘사건의 부활’이었다. 사실 사건의 부활은 그 자체로서 정확한 표현이 아니다. 제3세대 아날 이전에도 역사서술에서 사건이 배제된 적은 없었다. 예컨대, 사건사(histoire événementielle)를 비판하는 브로델조차도 자신의 학위논문, 『필립 2세 시대의 지중해와 지중해 세계』 마지막 3부에서 사건들의 역사를 고찰하고 있다. 문제는 사건을 있는 그대로 관찰하는가 아니면 배후의 거대한 흐름 속에서 파악하는가의 차이이다. 브로델은 이 배후의 흐름을 역사적 구조라고 보았고, 사건은 이 역사적 구조에 비추어 해명되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따라서 제3세대 아날 이후 벌어진 사건의 부활이란 정확히 말하면 역사적 심층의 몰락을 의미한다. 에르네스트 라부르스(Ernest Labrousse)의 제자인 피에르 쇼뇌(Pierre Chaunu)는 전체사를 대체하는 계열사를 만들어냈다. 더 이상 무수한 역사의 대상들을 하나의 전체로 설명하는 것이 문제가 아니다. 계열사가들은 하나의 주제와 관련한 다량의 문서자료들을 수집하고 컴퓨터를 통해 이 자료들을 최대한 계량화시킴으로써 역사의 진실에 다가갈 수 있을 거라 믿었다. 이들은 총체성을 해명해주는 설명체계를 거부해버렸고 수치와 컴퓨터에 기초해 사건에 대한 기술적이고 경험적인 연구로 나아갔다.

바로 이 지점에서 프랑소아 도스는 제3세대 아날의 계열사를 경험주의라고 비판한다. 도스에 따르면 피에르 쇼뇌(Pierre Chaunu)나 엠마뉴엘 르 르아 라뒤리(Emmanuel Le Roy Ladurie) 등이 보여주는 계량화에 대한 물신숭배는 이들의 역사학이 기반하는 경험주의를 은폐하기 위한 수단일 뿐이다. 벤드에 대한 비판도 여기서 등장하는데, 역사를 단지 “사건들

17) 폴 벤드, 15쪽.

18) 폴 벤드, 21쪽.

에 대한 이야기”로 치부하는 그의 주장은 제3세대 아날이 근거하는 “경험주의의 절정”을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다. 도스는 아날 3세대의 ‘새로운 역사학’(La nouvelle histoire)이란 결국 가공되지 않은 자연 그대로의 사실과 사건에 매료된 20세기 초 방법론 학파가 보여주었던 신실증주의의 재생에 불과하다고 결론짓는다.¹⁹⁾ 1929년 방법론 학파의 실증주의를 비판하며 탄생했던 아날은 제3세대에 이르러 다시 자신의 선배들이 비판하던 그 낡은 역사학으로 회귀한 것이다.

도스의 비판은 충분히 설득력 있는 이야기이지만, 문제는 라브루스의 제자들과 벤스를 동일한 시각에서 바라보고 있다는 점이다. 그는 계열사가들과 벤스와의 차이점을 무시하고 있다. 이들은 같은 길을 걷는 동반자였을 뿐 결코 하나의 입장을 공유하고 있던 것은 아니었다. 다시 말해, 수치를 중시하는 계열사가들이 경험주의에 매몰되어 있던 것은 사실이며 벤스 역시 경험주의적인 주장을 하고 있는 것이 사실이지만 이 둘은 근본적으로 다른 뿌리를 가지고 있었다. 브로델이 우려했던 것처럼 계열사가들은 인식론에 대한 고민이 없었다.²⁰⁾ 그들은 단지 수치나 통계와 같은 방법론의 문제만을 강조한 반면, 벤스는 인식론의 차원에서 역사를 고민했다. 계열사가들의 문제설정이 애당초 아날이 부정하고자 했던 20세기 초 방법론 학파의 실증주의와 맥이 닿아있다는 도스의 설명은 타당하지만, 벤스의 경우는 전혀 다른 기원을 가지고 있는 것이다. 이 점을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벤스의 사상적 기원을 찾아 역사사상의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19) 프랑소아 도스, 260~265쪽.

20) 페르낭 브로델은 이렇게 말한다. “엠마뉴엘 르 르아 라뒤리가 미래의 역사학자는 프로그래머가 될 것이며 그렇지 않으면 아무 것도 할 수 없을 것이라고 주장하는 데는 어떤 환상이나 위안이 있지는 않은지 우려하는 바이다. 내가 관심을 갖는 것은 바로 프로그래머의 프로그램이다.” Fernand Braudel, *Ecrits sur l'histoire* (Paris: Champs/Flammarion, 1969), p. 7; 그러나 피에르 쇼뉴는 “인식론은 단호히 물리쳐야만 하는 유혹이다”라고 이야기한다. Pierre Chaunu, *Histoire quantitative, Histoire sérielle* (Paris: Armand Colin, 1978), p. 10.

Ⅲ. 근대 역사사상의 역사

1. 역사에 대한 비판철학

우리가 처음 제시한 인용문에서 벤느는 “역사학은 설명하지 않는다”고 이야기한다. 설명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의미일까? 벤느에 따르면, 설명이란 “하나의 사실을 그것의 원리에, 혹은 하나의 이론을 더욱 일반적인 이론과 관련시켜 말하는 것”을 의미한다.²¹⁾ “과학적 의미에서 역사적 설명은 존재하지 않으며” 역사가의 입장에서 설명이란 “이해할 수 있도록 만들기”를 의미한다.²²⁾ 이해(*compréhension*)란 객관적으로 인지할 수 없는 것을 주관적으로 인식하는 행위를 말하며, 이해시킨다는 것은 자신의 주관적인 견해를 상대방에게 납득시키는 행위이다. 벤느의 입장에서 역사란 ‘설명하는 것’이 아니라 ‘이해하고 이해시키는 것’이다. 따라서 벤느는 역사가의 작업을 “해명하기”(expliciter)라고 이야기한다.²³⁾

이제 우리는 에르베 마르탱이 벤느를 1950년대 프랑스 “상대주의”의 계보로 분류하는 이유를 알 수 있다. 방법론 학파의 객관주의를 비판하면서 역사를 주관적인 이해로 보고자 했던 입장이 레이몽 아롱과 앙리 마루로 이어지는 <역사에 대한 비판철학>이었다. 1938년 아롱은 『역사철학 입문』에서 당시 역사학계의 주류이던 방법론 학파를 겨냥하여 역사적 객관성의 한계를 지적한다. 아롱에 따르면, “학문적으로 연구하기도 전에 이미 다 이루어져 있으며, 단순히 충실하게 재생산하기만 하면 되는 그러한 역사적 실재는 존재하지 않는다”.²⁴⁾ 역사란 역사가의 재구성 행위이다. 다시 말해, 역사 속의 사실들을 하나로 묶는 인과성이란 객관적 사실 그 자체에 존재하는 것이 아니라 이 사실들을 탐구하는 역사가의 이해 속에서 나온다. 따라서, 역사적 사실이란 의도성과 동기, 그리고 가치의 결합에 의해 이해 가능한 전체에 통합될 때 비로소 존재할 수 있는 것이다.

21) 폴 벤느, 152쪽.

22) 폴 벤느, 153쪽.

23) 폴 벤느, 160쪽.

24) Raymond Aron, *Introduction à la philosophie de l'histoire: Essai sur les limites de l'objectivité historique* (Paris: Gallimard, 1957), p. 120. 인용문 중 강조는 레이몽 아롱 본인이 한 것이다.

마루는 1954년 『역사지식에 관하여』에서 아롱의 입장을 발전적으로 계승하고 있다. 그는 아롱을 따라 역사가의 작업에 가장 중요한 요소로 “이해”를 이야기한다. “한마디로 말해 이해는 역사가에게 실존적인 가치를 지니고 있으며 이해의 진지함과 의미작용 그리고 가치는 바로 거기에서 비롯된다.”²⁵⁾ 마루는 우리가 앞서 인용한 아롱의 구절을 언급하면서, “역사는 역사가에 의한 창조적 노력의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는 역사가가 자신이 환기하는 과거와 자신의 것인 현재 사이의 관계를 설정함으로써 생겨난다”고 말한다.²⁶⁾ 이처럼 마루는 아롱의 입장을 단순히 재생산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역사가의 실천, 그리고 그 실천 속에서 현재의 중요성을 보다 강조하는데, 이는 루시앙 페브르의 영향이었다. 페브르는 <문제사>를 제기하며, 역사가의 능동성을 강조하고 “현재의 요구에 입각하여 과거에 문제를 제기하는 역사”를 주장했다.²⁷⁾ 마루는 자신의 저서 곳곳에서 페브르를 인용하고 있으며, 페브르의 계승자인 브로델(Fernand Braudel)은 마루의 저서에 공감을 표시한 바 있다.²⁸⁾

에르베 마르탱의 주장처럼 벤느는 아롱에서 마루로 이어지는 <역사에 대한 비판 철학>의 계승자인가? 벤느는 저서 여러 곳에서 마루를 인용하고 있으며, 특히 역사가의 주관성을 강조하는데에서 마루에게 빚을 지고 있다. 그렇지만, 이 두 명의 차이는 마루가 현재의 시간을 살아가는 역사가의 실천을 적극적으로 강조한 반면 벤느가 말하는 역사에서 현재는 아무런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점이다. 오히려 벤느는 역사학이 현재의 시간에 개입할 수 있다는 가능성 자체를 부정한다. 벤느가 보기에 역사를 연구하는 근본 동력은 역사가의 “지적 호기심”일 뿐이다.²⁹⁾ 이러한 차이는 결정적인 것인데, 이 차이로 말미암아 마루는 경험주의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벤느는 그러지 못했다. 마루에게 중요한 것은 역사란 무엇인가에 대

25) Henri-Irénée Marrou, *De la connaissance historique* (Paris: Seuil, 1954), p. 197.

26) Henri-Irénée Marrou, pp. 50~51.

27) “문제를 제기한다는 것, 그것은 모든 역사학의 시작이요 끝이다. 문제가 없으면 역사도 없다”. Lucien Febvre, “Vivre l'histoire”, *Combat pour l'histoire* (Paris: Armand Colin, 1953), p. 22.

28) Fernand Braudel, “Histoire et sociologie”, p. 181.

29) 폴 벤느, 40쪽 그리고 135~147쪽.

한 정의 그 자체가 아니라 현실 속에서 역사학의 역할과 효용성이었다. 이 때문에 마루는 역사가를 수동적인 존재로 바라본 방법론 학파를 비판하고 역사연구에서 역사가의 능동적인 역할을 강조했던 것이다. 이 점에서 마루는 아날의 창시자였던 페브르나 블로크와 동일한 문제의식을 가지고 있었고 이들의 계승자인 브로델과도 공감할 수 있었다. 하지만, 벤느의 관심사는 역사를 인식론의 차원에서 정의하는 것, 그뿐이었다. 따라서, 벤느는 마루의 계승자라기 보다는 19세기 말 독일 신칸트주의(Neokantism)의 후계자라고 할 수 있다. 벤느의 사상적 기원을 찾아 우리는 역사학의 역사를 좀 더 거슬러 올라가야 한다.

2. 개별기술로서의 역사

벤느에게 역사는 과학이 아니며 설명보다 이해가 중요하다. 그리고 무엇보다 “역사는 개별 기술적인 학문이다”.³⁰⁾ 벤느보다 앞서 과학과 역사를, 설명과 이해를, 그리고 법칙정립적(nomothetique) 학문과 개별기술적(idiographique) 학문을 대립시켰던 이들은 19세기 후반 독일의 신칸트주의자들이었다. 1810년 빌헬름 폰 훔볼트(Wilhelm von Humboldt)가 베를린대학을 창설하고 여기에 역사학강좌가 최초로 개설되어 1825년 레오폴드 폰 랑케(Leopold von Ranke)가 부임하면서 역사는 대학 체제 내의 독립적인 하나의 학문으로 변신한다. 이른바 근대 역사학이 탄생한 것이다. 그렇지만 역사학이란 과연 어떤 성격의 학문인가에 대한 논란은 19세기 내내 계속되었는데, 가장 격렬했던 논쟁은 1891년 출간된 칼 람프레히트(Karl Lamprecht)의 『독일사』를 둘러싸고 전개된다. 람프레히트는 랑케 학파의 형이상학적인 역사주의를 비판하고 역사학을 체계적인 사회과학과 제휴시키려 시도한다. 그렇지만 랑케의 제자였던 빌헬름 딜타이(Wilhelm Dilthey)는 <자연과학>과 <정신과학>을 엄격히 구분하면서 람프레히트의 작업을 비판한다. 빌헬름 빈델반트(Wilhelm Windelband)는 딜타이의 논리를 인식론의 차원에서 개념화한다. 즉 자연과학은 생명없는 자연의 규칙적이고 반복적인 유형을 추상적인 용어로 ‘설명’하는 <법칙정립

30) 폴 벤느, 27쪽, 114쪽.

적> 학문이며 정신과학(혹은 문화과학)은 구체적인 문화적, 사회적, 역사적 배경 속에서 인간 행동이 지니는 의미를 파악하고 ‘이해’하는 <개별기술적> 학문이다.³¹⁾ 따라서 정신과학의 영역에 속하는 역사학은 자연과학을 모방하여 사회법칙을 추구하는 사회과학과는 그 지향점이 엄격하게 구분되어야 한다. 이와 같은 구분은 벤스가 역사학을 바라보는 인식론적 토대가 된다.

임마누엘 왈러스타인(Immanuel Wallerstein)은 자본주의 세계경제의 이데올로기로 19세기 역사적 사회과학(historical social science)을 지적하면서 법칙정립 대 개별기술의 “거짓된” 대립이 역사적 사회과학을 지탱해온 인식론이라고 비판한 바 있다.³²⁾ 19세기말 이래 20세기까지 전개되는 법칙정립적 학문과 개별기술적 학문 사이의 논쟁은 사실 경험주의라는 공통된 토대를 가지고 있었으며, 이 경험주의는 1815년 이래 세계체제 내의 헤게모니를 구축한 영국이 문화와 이데올로기의 영역에서도 자신의 정당성을 확고히 하려는 속셈에서 등장했다는 것이다. 왈러스타인은 1845년부터 1968년까지의 아날은 바로 법칙정립 대 개별기술이라는 이 기만적인 대립을 부정하면서 성장해왔다고 이야기한다. 그에 따르면 1958년 브로델의 『역사와 사회과학들: 장기지속』은 이러한 아날의 비판을 가장 강력하게 이론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글이었다.³³⁾

그렇다면 결국 1969년 이후 아날의 편집권을 물려받으며 역사학계의 주류로 부상한 제3세대 역사가들과 마찬가지로 벤스 역시 경험주의에 매몰되어 있었으며, 이들의 역사학은 애당초 아날이 비판하고자 했던 20세기 초 신실증주의의 부활에 불과하다는 도스의 비판이 정확했던 것일까?

31) 빈델만트의 이 유명한 정의는 1894년 스트라스부르대학 총장 취임 연설에 등장한다.

32) 임마누엘 왈러스타인, 『사회과학으로부터의 탈피』, 성백용 옮김 (서울: 창작과 비평사, 1994), 6쪽, 15~34쪽 그리고 314~316쪽.

33) 임마누엘 왈러스타인, 290쪽.

IV.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

1. 사건과 줄거리

그렇지만 벤스는 역사학을 개별기술적인 학문으로 정의하는데서 멈추지 않고 “줄거리”(intrigue)의 문제를 도입하면서 자신의 역사 인식론을 보다 체계화한다. 벤스에 따르면, 역사는 사건들에 대한 이야기이다. 벤스가 말하는 ‘이야기’는 아루이나 마루가 말했던 역사의 재구성과 동일한 것이다. 그렇지만, 폴 리쾨르(Paul Ricoeur)가 지적하는 것처럼 벤스는 ‘재구성’이 아닌 ‘이야기’라는 용어를 채택함으로써 역사서술의 문제를 보다 멀리 밀고 나갈 수 있었다.³⁴⁾ 벤스에게 역사적 설명이란 “이야기가 이해 가능한 줄거리로 조직되는 방식”을 뜻한다.³⁵⁾ 물리학은 법칙을 통해 사실들을 포섭하지만, 역사기술은 줄거리를 통해 사실들을 통합한다. 역사가가 사실들을 줄거리 속에 삽입하는 작업은 이 사실들을 이해 가능하도록 진술하는 것이며, 개별적인 사건들을 일반성 속에서 기술하는 것이다. 즉 역사의 이해는 줄거리를 통한 서술행위에서 이루어지는 것이다. 줄거리를 통해 개별적인 사실들은 종별적인(spécifique) 사실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과거의 한 개인은 역사가에 의해 하나의 줄거리를 부여받을 때 비로소 역사 속의 인물이 될 수 있다. 이 인물의 어떤 특성을 주요하게 서술할 것인가는 줄거리에 달려있으며, 어떤 줄거리를 부여받는가에 따라 이 인물의 역사적 위치가 결정된다. 따라서 역사가의 작업이란 특정한 줄거리를 통해 개별적인 사실들을 해명하는 것이다.

역사 인식론에 ‘줄거리’의 문제를 도입함으로써 벤스는 20세기 초 방법론 학파나 20세기 후반 아날 제3세대의 계열사가들이 봉착할 수 밖에 없었던 실증주의를 피해 나갈 수 있었다. 따라서 논의의 대상은 급작스럽게 변경된다. 더 이상 ‘날 것의 생생한 사실들’이 문제가 아니며, 그 사실들을 ‘통합’하고 의미를 부여해주는 줄거리가 중요해진 것이다. 흥미로운 점은 앞서 우리가 본 바와 같이 기본적인 인식론의 구도에서 벤스와 왈러스타

34) 폴 리쾨르, 『시간과 이야기』, 김한식, 이경래 옮김 (서울: 문학과 지성사, 1999), 338쪽.

35) 폴 벤스, 152쪽.

인은 서로 대립하고 있지만, 벤스가 줄거리의 문제를 도입하는 순간 그는 다시 왈러스타인과 합류하고 있다는 사실이다. 이러한 ‘기묘한 합류’를 가능하게 한 건 바로 막스 베버(Max Weber)였다. 이 점에 대해 좀 더 살펴 보도록 하자.

벤스는 “우리 시대의 가장 모범적인 역사서는 막스 베버의 책들”이라고 말한다.³⁶⁾ 그에게 베버는 단순히 사회학자가 아니다. “이해로서의 사회학 이자, 법칙을 제시하려 하지 않는 베버의 저작은 실상 역사학적이다.”³⁷⁾ 베버는 19세기 신칸트주의 전통을 비판적으로 계승한 인물이었다. 신칸트주의의 전통에서 베버는 역사적 인과성이 객관적 실재에 존재한다는 것을 부정하고 이해의 범주에서 해명하려 노력했다. 그렇지만, 딜타이나 빈델발트가 이해를 직접적 경험의 직관적 행위로 본 반면 베버는 그것을 고도의 합리화 과정으로 생각했다.³⁸⁾ 벤스가 말하는, 이미 일어난 사건들을 특정 줄거리 속에서 이해하고 또 이해시킨다는 것은 바로 베버적 의미에서 고도의 합리화 과정을 뜻한다. 따라서 벤스에게 역사학의 확장은 체험된 세계를 합리화할 수 있는 개념들을 풍부하게 함으로써 가능해진다.³⁹⁾ 이러한 관점에서 그가 생각하는 역사서술의 모델은 베버의 저작들이었다.⁴⁰⁾ 그렇지만, 이러한 개념사(l’histoire conceptualisante)⁴¹⁾는 왈러스타인이 『근대세계체제』에서 시도했던 역사와 동일한 것이 아닐까? 이 저서에서 왈러스타인은 현재 우리가 경험하는 세계를 탄생시킨 근대화의 장구한 역사 과정을 자본주의 세계체제라는 개념을 통해 해명하고 있다.

1982년 왈러스타인은 19세기말 법칙정립 대 개별기술의 허위적 대립을 넘어서고자 시도했던 움직임으로서 당시 독일학자 구스타프 본 슈몰러

36) 폴 벤스, 448쪽.

37) 같은 곳.

38) Catherine Colliot-Thélène, *La Désenchantement de l’Etat: de Hegel à Max Weber* (Paris: Les Editions de Minuit, 1992), pp. 74~82 참조.

39) 폴 벤스, 340~342쪽.

40) Paul Veyne, “L’histoire conceptualisante”, in *Faire de l’histoire I*, eds. Jacques Le Goff, Pierre Nora (Paris: Gallimard, 1974), p. 94.

41) 물론 여기서 벤스가 이야기하는 “개념적 역사”는 라인하르트 코젤렉(Reinhardt Koselleck)의 “개념의 역사”(History of Concept)와는 다른 것이다. 개념의 역사에 대해서는 나인호, 「언어혁명과 유럽사회의 근대화: 코젤렉 개념사의 테마」 『한국사학사학보』 6 (2002)를 참조.

(Gustav von Schmoller)의 역사주의 학파를 제시하고, 비엔나의 경제학자 칼 요제프 멩거(Carl Joseph Menger)와 슈몰러 학파 간의 방법론 논쟁(Methodenstreit)을 상기하면서 나중 세대의 아날 역사가들이 슈몰러를 읽었을지조차 의심스럽다고 이야기한 바 있었다.⁴²⁾ 그렇지만 이미 벤느는 1971년에 출간된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의 마지막 문단에서 이렇게 쓰고 있다. “순수이론으로서의 경제학 주창자들(멩거)과 역사적, 서술적 학문으로서의 경제학 주창자들(슈몰러)이 맞붙은 방법론 논쟁에서 딜타이와 역사주의의 계승자였던 베버가 어떤 인식론적 입장을 취했는지 우리는 잘 알고 있다.”⁴³⁾

2. 벤느의 간극들

이처럼 서로 대치되는 인식들에서 출발하여 유사한 결론에 도달하는 것은 어떻게 가능한가? 이것은 동일한 저서를 두고 다양한 해석들이 도출되는 것과 같은 이유에서 생겨난다. 즉 벤느가 제시하는 역사사상의 논리에는 일정한 틈새들이 존재하고 있다. 이 틈새들에서 상이한 해석들, 전혀 다른 결론이 생겨난다.

우선, 벤느의 기본 인식들인 사건 중심의 역사와 그가 도입하는 줄거리의 개념 사이에는 균열이 존재한다. 『역사를 어떻게 쓰는가』의 기본 구조에는 구조의 역사는 줄거리가 없으며, 사건 중심의 역사만이 줄거리를 가질 수 있다는 전제가 깔려있다. 그렇지만 리쾨르가 지적하는 것처럼 벤느의 주장이 완벽해지려면 “줄거리의 개념은 사건 중심의 역사와 연결되어 있지 않으며 구조의 역사에도 마찬가지로 줄거리가 있다는 것을 인정해야 한다.”⁴⁴⁾ 리쾨르는 『시간과 이야기』에서 구조의 역사를 지향하는 브로델

42) 임마누엘 왈러스타인, 255쪽; 칼 멩거는 경제학이 엄격하고 보편타당하며 수학적으로 공식화할 수 있는 법칙에 의해 구성된다고 본 반면, 역사주의의 영향을 강하게 받은 구스타프 폰 슈몰러는 국민이나 민족(volk)의 가치와 제도적 틀 안에서의 역사적인 관점을 강조했다. 특히 그는 역사적 기술 그 자체가 설명을 내포한다고 보았다. 슈몰러 학파와 베버의 이론적 관계에 대해서는 조지 이거스, 『20세기 사학사』, 임상우, 김기봉 옮김 (서울: 푸른역사, 1999), 65~71쪽을 참조.

43) 폴 벤느, 450쪽.

44) 폴 리쾨르, 346쪽.

의 저서 역시 줄거리의 구성을 통한 서술임을 보여주고 있다.⁴⁵⁾ 줄거리는 사건 중심의 역사를 통해서만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며 구조의 역사를 통해서도 얻을 수 있는 것이다.

보다 심각한 문제는 앞서 지적한 것처럼 벤스가 역사연구를 단순히 호기심이라는 목적에 쓰이는 지적 활동으로 정의하면서 역사학과 현실 사이의 관계를 분명하게 끊어버린다는 것이다. 줄거리의 역할은 무엇인가? 사실들을 이해하고 해명하기 위한 것이다. 그렇지만 왜 사실들을 이해하고 해명해야 하는가? 벤스가 주장하듯이 단순히 지적 호기심을 위한 것이 라면, 따라서 사실들의 이해가 역사가가 속해있는 현실과의 관계 속에서 아무런 의미를 갖지 못한다면 이러한 역사학은 과거 사실의 객관적 실체 확인만을 강조했던 20세기 초 실증주의 역사학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 아날의 창시자 페브르와 블로크가 방법론적 역사학이 표방했던 순수한 실증주의를 비판한 가장 큰 이유는 이 낡은 역사학적 전통이 역사학을 현재와 격리시키고 과거에 묶어버림으로써 역사연구의 역할과 가능성을 지나치게 축소시켜 버렸기 때문이었다.⁴⁶⁾ 이에 맞서 페브르와 블로크는 역사가가 속해있는 현재 시간과 역사연구의 밀접한 연관성을 강조하면서 역사학의 지평을 확장시킬 수 있었고, 과거 사실의 인식 그 자체에만 매진하던 역사학의 낡은 전통을 넘어서 수 있었다.⁴⁷⁾ 하지만 벤스는 아날 선배들의

45) 폴 리쾨르, 405~425쪽. 리쾨르는 브로델의 『필립 II세 시대의 지중해와 지중해 세계』를 분석하면서 지중해 세계라는 역사적 구조의 장기지속 과정이 줄거리를 가진 하나의 거대한 이야기를 통해 서술되고 있음을 논증한다. 『시간과 이야기』에서 리쾨르가 시도하고 있는 작업은 단순히 ‘서술의 부활’만이 아니라 궁극적으로 ‘역사철학의 부활’을 목적으로 한다.

46) 블로크는 실증주의에 몰두해있는 방법론적 역사학이 “가능성 자체의 부정”이라고 보았고, 페브르는 “사실주의 학파”의 “불임적 분위기”를 비판했다. 또한 “늙은 랑케의 순진한 발언”을 “어린애처럼” 순종하는 “1870년 패배자들의 사론”이라고 비웃었다. Marc Bloch, *Apologie pour l'histoire ou metier d'historien* (Paris: Armand Colin, 1974), p. 28; Lucien Febvre, “Avant-propos” in Charles Morazé, *Trois essais sur histoire et culture* (Paris: Armand Colin, 1948), p. vii; “Face au vent, Manifeste des Annales nouvelles”, *Combats pour l'histoire*, p. 41.

47) 블로크는 ‘역사란 무엇인가’라는 전통적인 질문 대신에 ‘역사로 무엇을 할 수 있는가’라는 새로운 문제제기로 ‘역사를 위한 변명’의 첫 구절을 시작한다. 페브르에게 역사학은 “과거에 대한 학문이자 현재에 대한 학문”였다. Marc Bloch, *Apologie pour l'histoire ou metier d'historien* 서문을 보라; 페브르에 대해서는 Fernand

문제의식을 부정하고 있다. 결국 벤느는 사건 중심의 역사에 줄거리 개념을 도입함으로써 실증주의로부터 벗어나고자 했지만, 역사연구와 현실 사이의 관계를 단절시킴으로써 역사학이 다시 과거의 낡은 모습으로 돌아갈 수 있는 통로를 열어놓은 것이다.

마지막으로 벤느는 역사와 과학, 설명과 이해를 명백히 분리하고 더 나아가 대립시킴으로써 주관성과 객관성을 대치시키는 결과를 낳았다. 객관이 배제되어버린 주관만으로 벤느가 강조하는 ‘해명’이 가능할까? 마루는 이점에서 벤느보다 앞서 있다고 할 수 있다. 마루에게 설명과 이해는 서로 다른 것이 아니며 객관과 주관도 대립되는 것이 아니었다. 객관과 주관은 대립하는 것이 아니라 서로 겹쳐지는 것이었다.⁴⁸⁾ 주관은 객관을 향한 뱃사공의 역할을 담당하며 ‘역사의 진실’이란 이러한 여정의 끝에서 생겨날 것이다.

V. 결론

그렇지만 여러가지 인식론적 문제와 논리의 틈새들에도 불구하고, 벤느의 저서는 역사연구에서 서술의 역할을 강조했고, 특히 프랑스 역사학의 전통에서는 최초로 줄거리의 중요성을 해명하려 했다는 의미를 갖는다. 무엇보다 방법론의 차원이 아닌 인식론의 차원에서 줄거리의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이후 보다 풍부한 논의가 펼쳐질 수 있는 장을 열어놓았다는 사실을 지적해야 한다.

이미 영어권에서는 1960년대 중반부터 아서 단토(Arthur Danto)나 루이스 밍크(Louis O. Mink)와 같은 철학자들을 중심으로 역사기술의 문제가 제기되어 왔다.⁴⁹⁾ 벤느를 통해 역사학의 영역에서도 서술의 문제가 제

Braudel, "Histoire et sociologie", p. 184 참조.

48) Henri-Irénée Marrou, p. 221; 브로델 역시 같은 주장을 한 적이 있다. Fernand Braudel, "Les Responsabilités de l'histoire", p. 101을 보라.

49) Arthur Danto, *Analytical Philosophy of History*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1965); Louis Mink, "The Autonomy of Historical Understanding" in *Philosophical Analysis and History*, ed. William Dray (New York: Harper and Row, 1966), pp. 160~192; "Philosophical Analysis and Historical

기되었고, 이 글의 제일 처음에서 지적인 바와 같이 스톤이나 화이트의 연구가 1970년대 후반 등장하게 된다. 그리고 벤스가 제기한 줄거리의 개념은 1980년대 리콤프의 『시간과 이야기』를 통해 보다 발전적인 방향으로 논의될 것이다.

역사학의 역사 속에서 벤스의 저서는 새로운 역사학의 단초를 가져왔다거나 급격한 인식론적 단절을 예고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그는 역사서술의 문제설정을 통해 역사학이 자신의 경계를 확장시키고 그 내용을 보다 발전시킬 수 있는 또 하나의 가능성을 제공했다. 이는 그의 저서가 남긴 가장 큰 기여일 것이다.

Understanding", *Review of Metaphysics* 20 (1968), pp. 667~698 등을 보라. 막스 베버에 근원을 두고 있는 벤스와는 달리 영어권 철학자들의 문제제기는 분석철학의 영역에서 이루어졌다. 따라서 이들의 논의는 논리 실증주의에 기반하고 있다. 이 점에서 역사의 과학성을 축소시키려했던 벤스와는 커다란 차이를 보이고 있다.

Writing History of Paul Veyne: the Question of Narrative and Epistemology

Koh, Won || Kyung Hee University
vertbois@freechal.com

French historian Paul Veyne's *Writing History*(*Comment on écrit l'histoire*), published in 1971, is one of important historical texts in late 20th century. This theoretical text on historiography brought about many arguments on historical epistemology in France. These arguments became international after a article of Lawrence Stone, "The Revival of Narrative: Reflections on a New Old History"(1979) and a text of Hayden White, *Metahistory*(1979).

There are many different interpretations of *Writing History*. Someone explains that the theory of history of Paul Veyne is a sort of empiricism. Others expounds it in the trace of french relativism. So far as some interpretation regard it as a precursor of postmodernism. These different interpretations are produced from defects of his theory of history. Paul Veyne separates 'intrigue' from

the history of structure; study of history from the present time; subjectivity from objectivity of the historiography.

Paul Veyne's *Writing History* has nevertheless an important meaning, because his text emphasizes a importance of narrative in the study of history, and attempts to elucidate the concept of intrigue for the first time in the tradition of modern historiography. Paul Veyne opened a field for rich arguments on the theory of history, and on the historical epistemology.

Key word : Paul Veyne(폴 벤느), narrative(이야기), epistemology(인식론),
intrigue(줄거리)